

우키요조시(浮世草子)와 의약문화 소고(小考)*

고영란**

(e-mail : yrkoh0603@jbnu.ac.kr)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4. 축재(蓄財)와 의약 |
| 2. 일상으로 침투한 의약문화 | 5. 나가며 |
| 3. 의약에 의한 방사(房事)와 장수 | |

키워드 : 西鶴(Saikaku), 浮世草子(Ukiyozoushi), 医薬文化(medicine culture), 房事(love affairs), 長寿(long lives), 蓄財(earning money)

1. 들어가며

독서환(讀書丸), 신녀탕(神女湯), 연수단(延壽丹). 이는 모두 에도시대(江戸時代) 후기 게사쿠(戲作) 작가인 산토 교텐(山東京伝:1761-1816), 다키자와 바킨(滝沢馬琴:1767-1848), 시키테이 산바(式亭三馬:1776-1822)가 제조, 판매한 제약(売薬)이다. 이 작가들은 인기 대중작가로서 활약하는 한편, 기성 제약을 제조, 판매하는 기구스리야(生薬屋)를 운영하는 상인으로서도 이름을 날렸다. 그들은 그 인기와는 달리 막부의 서적 출판에 대한 통제, 저렴한 원고료 등으로 인해 안정적 경제생활이 힘들었고, 친지의 병환 등 직접적으로 제약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기구스리야를 운영했다. 이들 작가는 자신의 문학 작품에 해당 약품을 광고함으로써 유통과 판매에 힘썼고, 나아가 포장이나 광고 전단지(引札)를 고안하여 구매자들의 관심 끌기에 성공했다는 정황이 연구되어왔다.¹⁾ 에킨대 선

* 이 논문은 201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일본고전문학

행연구는 에도 후기 닌조본(人情本) 작가 다메나가 슌스이(為永春水:1790-1844)가 자신의 작품 속에 제약을 파는 가게명과 제약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이들을 추천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²⁾ 이렇듯 에도 후기 일본 대중문학 속에는 약국, 제약명이 묘사, 광고, 유통되고,³⁾ 질환, 의료행위 등 의약문화가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의약문화가 에도 초중기 대중문학 속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전무한 상태다. 다만 사이카쿠 작품에 묘사된 정력제 및 방사 기구를 통해 사이카쿠의 의약문화에 관한 지식을 가능하고 그 집필 의도를 분석한 연구가 있으나,⁴⁾ 아쉽게도 이 외에 에도 초중기 대중문학 속 의약문화의 양상과 그 의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언급한 바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일본의 의약문화는 에도 초중기의 대중문학에서도 종종 묘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에도시대 의약문화가 후기의 대중문학을 통해 비로소 대중에게 인식되고 공유되었던 것이라고 반드시 결론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에도시대 초중기 대중문학 속에 묘사된 의약문화의 흐름과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1642-1693, 이하

1) 吉岡信(2011) 『江戸の生薬屋』, 青蛙房, pp.108-124, pp.137-142, pp.158-159.

2) 최태화(2013) 「일본 근세 광고문학과 슌스이 닌조본에 보이는 광고의 역할」, 『일본언어문화』 제25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 607. “이 책은 원래 유치한 것이긴 하나, 동산당(東山堂)의 산적탕(疝積湯)은 고금(古今)에 없는 명약이나, 이를 사방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자비심이 생겨나니, 희극(戲劇)이라고는 하나, 그 이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분세이(文政) 9년 봄 난선쇼 소마비토(南仙笑楚滿人) 슌(중략) 슌스이가 제작한 경물본은 확인되지 않는다. 슌스이는 경물본을 제작하는 대신 산바와 같이 자신의 닌조본을 직접 광고매체로 사용하는 기법을 택하였다.”

3) 長友千代治(2002) 『江戸時代の図書流通』, 思文閣出版, p.295. 「江戸後期に作者が、また貸本屋も含めた本屋が、製薬や売薬、また売薬の取り次ぎをしていたことは、本の巻末広告や貼り付けの報条等で知られる。」

近世風俗研究会(1956) 『繪本江戸賣薬志』 近世風俗研究会, pp.7-8. 「奇応丸 この薬は我國獨自の處方で、(中略)各薬舗から發賣された事は以下に別記する通りであるが、木曾街道、福島宿のものが著名であって、『續膝栗毛』八の上の序に、(中略)馬琴の店舗でもひさいていた事は、その頁の図版によって知られるし、(中略)その薬効は、天明七年刊京伝の洒落本『通言總籙』に遊女の會話として、」

4) 山崎光夫(2015) 『薬で読み解く江戸の事件史』, 東洋經濟新報社, pp.158-161. 「圧巻は、この小説の末尾で用意した強壯食品や強精剤、性具、性書、催淫剤、墮胎薬の数々である。医薬にも精通した西鶴はこれでもかと具体的に列記した。その数、二十三種。いずれも当時最先端の“好色品情報”である。(中略)おそらく、海狗腎は強精、強壯作用の確かな生薬ではあるものの、珍奇すぎて、将軍や大名ならともかく、庶民には入手不可能である。先に列挙した二十三種の好色品はその気になれば、すべて入手可能である。そこで、リアリズムを重んじ、知識人や町人などを相手にした西鶴としては、この強精薬をはずしたと考えられる。医薬通であればこそその配慮と判断できる。」

사이카쿠)와 그에 후속하는 작가들의 우키요조시(浮世草子)를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에도시대 대중문학의 효시인 우키요조시 속에서 의약문화가 어떻게 인식되고 묘사되었는지, 즉 당대에 의약문화는 우키요조시를 읽는 조닌(町人)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나아가 에도시대 일본 의약문화가 어떻게 대중문학을 통해 인식되고 공유되어왔는지 그 포괄적 흐름을 이해하고 고찰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일상으로 침투한 의약문화

우키요조시란 소설 장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되듯, 사이카쿠의 초기 작품 외에는 작가가 아닌 출판사에 의해 기획되어 그 내용이 일정 정도 상품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⁵⁾ 동시에 우키요조시의 내용은 무사계층이 지배하는 봉건제 사회 속에서 서민층인 조닌들이 모색하고 염원하는 바가 담겨 있기도 하다.⁶⁾ 이와 같은 우키요조시에 묘사되고 있는 의약문화란 당대 조닌들이 각기 다양한 이유로 관심을 두고 인지한 사물, 인식 세계, 관련 행위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에도시대의 의약은 현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 본초학(本草学)을 극복하고 일본 고유의 본초학을 확립한 에도 초기 학자 가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1630-1714, 이하 에키켄)⁷⁾은 그의 저서 『양생훈(養生訓)』(1712)에서 의약에 대해 다음과

5) 暉峻康隆(1981) 『西鶴新論』, 中央公論社, pp.377-382. 「つまり話し合いで値段をきめて取引するという原初的な状態を脱し、地方の読者の注文にも応じるように、出版という企業が整備されたのである。大阪の町人俳人の井原西鶴が、はじめて庶民を主人公として清新な娯楽作品『好色一代男』を発表したのは、書籍が商品としてランクされたその翌年、天和二年(1682)のことであった。(中略)西鶴も出版ジャーナリズムと提携した以上、読者の嗜好を考慮し、版元の要求に対処せざるをえなくなったのである。」

6) 広末保(1969) 『元禄文学研究』, 東京大学出版社, pp.2-9. 「近世初期からはじまる町人文学の発展を支えていたものは町人階級の階級的発展であるといわれる。そう考えても大過あるまい。しかし、その町人階級がおすすめていた新しい人間形成は、一六八〇年前後に或る種の危機に直面していると思う。少なくとも、文学の上では、一六八〇年前後の動向にそういう危機が反映していると思う。結論めいたことを先にいうなら、元禄文学は、それまで展開してきた町人文学が、この危機と直面し、それに対応して行く過程で成立しているとは私は考える。(中略)元禄文学のなかに何らかの新しい文学的価値の創造があるとしたら、それはなんであるか。極く常識的でない方を許してもらおうなら、それは、封建社会の反人間的な矛盾に対抗しながら、新しい人間的価値を発見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ろう。或は、新しい人間的価値の発見のためにその文学がたた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ろう。」

같은 인식을 피력한다.

사람의 몸은 부모를 근원으로 하고 천지를 시작으로 한 것이다. 천지, 부모의 은혜를 받아 태어났고 또 길러진 몸이니, 자신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천지로부터 받은 것, 부모가 남겨준 몸으로 삼가 잘 기르고 상처 입지 않도록 하여 천수를 길게 유지해야 한다. (중략) 하물며 위대한 생명을 내 몸이라 생각하여, 근신하지 않고 제멋대로 음식, 색욕에 빠져 원기를 잃어버리며 병에 걸려서 타고난 천수를 단축시켜 일찍 생명을 잃는 것은 천지, 부모에 대한 최대의 불효이며 어리석은 일이다.⁸⁾

에키켄에 의하면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효도로 이어지니 식욕, 색욕을 잘 다스려 장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의학과 달리 양생(養生)하고 장수하는 것은 유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실천 윤리로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유학자로서 지닐 수 있는 당연한 발상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에키켄은 “감기·기침에는 참소음(參蘇飲), 감기의 사기를 발산하는 데는 향소산(香蘇散)·패독산(敗毒散)·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 소화불량에는 평위산(平胃散)·향사평위산(香砂平胃散)이 좋다.”고 제약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⁹⁾ 당대 굴지의 유학자요 의학자인 에키켄이 구체적인 제약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독자가 해당 제약명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기술이다. 이렇듯 당대 의약문화는 형이상학적인 충효의 실천으로서의 측면과 동시에 일부 구체적인 제약명이 상식으로서 공유되고 있는 측면으로 나뉠 수 있는데, 여기서 본 연구는 제약명이 18세기 초 에도시대 문화 속에 녹아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부 제약명이 에도시대 초중기의 상식이었다는 사실은 선행연구가 겐로쿠기(元祿期:1688-1704), 쇼토쿠기(正徳期:1711-1716)에 일본 사회가 의약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고 지적한 바¹⁰⁾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7) 에키켄은 중국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을 문헌학적으로만 계승하던 경향을 극복하고자 일본에서 채집할 수 있는 약재를 중심으로 한 『야마토 혼조(大和本草)』(1709)를 편집하여 이후 일본 본초학의 기초를 닦는다.

8) 강용자 역(2009) 『양생훈』, 지식을 만드는 지식, p.19.

9) 위의 책, p.133.

10) 青木歳幸(2012) 『江戸時代の医学』, 吉川弘文館, p.42. 「『養生訓』は、以後の江戸期類書のモデルとなった。(中略) 元祿・正徳期は、江戸時代の養生論刊行の最初のピークであった。人命への関心のたかまりもその背景にあろう。なお、江戸時代の養生論の最大のピークは一九世紀前半の文化文政期にあり、庶民の生命感・生活観も多様に変化を見せてくる。」

일부 제약명이 상식이 되어가듯, 우키요조시에는 의약과 관련된 의약 도구명, 의약 관련 가게명 등 조년의 일상으로 침투해 온 의약문화의 현황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를 다음에서 살펴보자. 앞서 확인하였듯이 에도기의 의약이란 한방 의약을 일컫고 건강을 유지하는 양생 비법이 중요하였다. 이를 방증하듯 『고쇼쿠 이치다이온나(好色一代女)』(1686)의 주인공 일대녀(一代女)는 실존했던 고타마야(小濱屋)의 약주(藥酒)를 즐겼다고 묘사된다.¹¹⁾ 또한 실존했던 가게 우메키노차야(梅の木の茶屋)에서 판매했던 제약 와추산(和中散)¹²⁾이 『난쇼쿠 오카가미(男色大鑑)』(1687)에 등장한다. 이에 대해서 다음 연구가 자제하니 이를 살펴보자.

- 켄펠이 적는다. 나가사키 데지마의 네덜란드 상관 의사인 켄펠은 겐로쿠 4년(1691)에 에도 막부로 쇼군(將軍)을 알현하러 가는 도중에 우메키무라의 와추산을 파는 가게에 들렀는데,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 이 마을은 다른 곳에서는 만들 수 없는 약효가 좋은 와추산이라는 가루약의 제조지로서 유명하다.” (중략) 우메키무라의 여러 가게에서 판매한 와추산에 대해서 나아가 여러 책에서 찾아보면,¹³⁾

위의 연구에 따르면 와추산은 나가사키에 와 있었던 네덜란드인 의사 켄펠이 관심을 둘 정도로 유명한 가루약이었는데, 켄펠이 우메키무라의 가게에 들르기 4년 전인 1687년에 사이카쿠 작품을 통해 이미 묘사되었다. 이를 보면, 우메키무라에서 판매한 와추산은 에도 초기에 이미 독자가 인지할 정도로 유명세를 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이카쿠 작 우키요조시 『혼초 니주후코(本朝二十不孝)』(1686), 『아라시와 무조노 모노가타리(嵐無常物語)』(1688) 등에는 당대에 약제를 끓일 때 사용했던 약 냄비(藥鍋)가 묘사된다.¹⁴⁾ 또한 종이로 만든 약 봉투를 검약을 위

11)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4)『対訳西鶴全集三 好色一代女』, 明治書院, p.307. 「出替の中宿あそび、女ながら美食好み、鶴屋のまんぢう、川口屋のむしそば、小濱屋の薬酒、」

12)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4)『対訳西鶴全集六 男色大鑑』, 明治書院, p.24. 「梅の木の家茶屋とて、和中散の売薬あり。汗をしのぐ冷水うれしく、」

13) 宗田一(2001)『日本の名薬』, 八坂書房, pp.69-70. 「○ケンペルの記すもの 長崎出島の蘭館医ケンペルは、元禄四年(1691)江戸参府の帰途、梅木和中散に立寄ったときの様子を次のように記している。「.....この村は和中散という他所では調剤できない薬効の高い散薬の製造地として有名である。」(中略)梅木村に数軒あった和中散についてさらに諸書から拾いあげてみると、」 이하, 모든 번역은 인용자에 의한다.

14)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5)『対訳西鶴全集十 本朝二十不孝』, 明治書院, pp.6-7.

해 머리끈으로 대용하는 시골 출신 시녀들이 묘사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종이 약 봉투에 약제의 이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양식은 당대의 의약 상식이었다고 하겠다.¹⁵⁾ 이렇듯 우키요조시에는 독자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제약명, 의약 도구명, 관련 가게명 등이 묘사되며 일상 속에 의약문화가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의약문화가 일상에 침투하니 조년의 일상이나 영위를 의약에 의탁하여 비유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예컨대 사이카쿠 작 『사이카쿠 쇼코쿠 바나시(西鶴諸国ばなし)』(1685)에서 어느 처형은 가난한 매부(妹夫)에게 가난함에 듣는 묘약 ‘금융환(金用丸)’, 즉 돈을 가상의 제약에 은유하며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보내준다.¹⁶⁾ 또한 사이카쿠 작 『닛폰 에이타이구라(日本永代蔵)』(1688)에서 부자가 되는 몇 가지 방법은 부자가 되는 가상의 제약인 ‘장자환(長者丸)’에 은유되어 설명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약을 달이는 법은 보통 때와 다르다. “사백 네 종류의 병은 세상에 명의가 있으니 반드시 치유할 수 있소. 사람은 지혜, 재치가 있어도 가난의 병에 들 때가 있소. 이를 고칠 치료법이 있겠소?”라고 부유한 사람에게 물으니, “지금 까지 그것을 모르고 이제 양생해야 하는 마흔 넘은 초로가 될 때까지 생각 없이 살아왔구려. 조금 진단이 늦어졌지만, 아직 나올 가능성이 있소. 왜냐하면 당신은 가축 덧신에 눈이 올 때 신는 신발을 평상시에 신고 있소.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니 부자가 될 수 있겠소. 장자환이라고 하는 묘약의 조제법을 알려드리리다.

「藥鍋、十七日十文、大溝の掃除、熊手・竹箒・塵籠まで持来り、一間を一文づつ。(中略)徒居(ただい)なく手足動かせば、人並に世は渡るべし。爰に、新町通四条下る所に、格子作りの綺麗なる門口に、丸にみつ蔦の暖簾かけて、五人口を、親にかかりの様に緩(ゆる)りと暮しぬ。しらぬ人は、医者かと思ふべし。長崎屋伝九郎とて、京中の悪所銀を借出す男なり。」、『対訳西鶴全集四嵐無常物語』, p.260. 「お宿はお首尾よきか」といふ所へ、『御子息ほうそう、ほとぼり殊の外の大事』と、けはしき使とつれて帰られける。一門中前後にあつまり、葉せんざくせしに、其中に才覚らしき人のいひ出して、『毒けしに金をせんじて吞せてよし』。『それ薬鍋よ』と、水あらためて、したを焼立、『小判一両』といへど、手代ども返事もせず。『これの内にこぼんがなひか。一步なりとも出せ』といふ。戸棚・ぜに箱さかしても、いかないかなかりけり。」

15)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4) 『対訳西鶴全集二 諸艶大鑑』, 明治書院, p.38. 「又は小めろ、故郷の垢もじねんに落ちて、葉紙の「せんじやう」と、書つけの所を切抜、平もとゆひこしらへ、」

16)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4) 『対訳西鶴全集五 西鶴諸国ばなし』, 明治書院, p.13. 「かくれもなき牢人、広き江戸にさへ住かね、此四、五年、品川の藤茶屋のあたりに棚かりて、朝の薪にことをかき、夕の油火をも見ず。是なはかなしき年の暮に、女房の兄、半井清庵と申て、神田の明神の横町に薬師あり。此もとへ無心の状を遣はしけるに、度々迷惑ながら見捨がたく、金子十兩包て、上書に、「ひんびゃうの妙薬、金用丸、よろづによし」として、内儀のかたへおくられける。」

△ 아침 일찍 일어나기, 다섯 냥 △가업을 열심히 하는 일, 스무 냥 △밤 늦도록 일하는 일, 여덟 냥 △검약하는 일, 열 냥 △건강함, 일곱 냥
이 선 냥의 약을 잘게 한 것을 주의 깊게 저울 눈금에 오차 없이 달고, 제조에 정성을 다한 것을 아침저녁으로 먹으면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없소.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금기 사항이 있소.”¹⁷⁾

위에서 부자는 가난한 이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마치 의사가 처방전을 내 주듯이 설명하고, 부자가 되는 약이라며 가상의 묘약 ‘장자환’의 재료를 알려준다. 한편 조년의 인간관계를 의약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죽대 없이 이쪽저쪽 붙는 사람을 ‘허벅지 안쪽에 붙이는 고약’이라고 일컬었다.¹⁸⁾ 이처럼 에도 초기 우키요조시에는 의약은 사람의 경제적 영위나 인간관계를 비유하는 데에 이용되는데, 이는 의약문화가 조년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상과 같이 양생법을 포함한 실존하는 의약문화가 에도 초기부터 조년의 일상과 밀접해진 사실은 몇몇 우키요조시만을 살펴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의약이 문학적 수사법으로써 사용될 정도로 일상에 밀접하게 인식되고 공유되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의약문화가 보다 구체적인 특정 상황에서 종종 인식되어 다루어지는 경우를 확인하고자 한다.

3. 의약에 의한 방사(房事)와 장수

사이카쿠 작 『고쇼쿠 이치다이오토코(好色一代男)』(1682)의 마지막 장인 8권 5장에는 방사를 위한 다양한 정력제 및 최음제가 묘사되는데, 이는 당대 최

17)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5)『対訳西鶴全集十二 日本永代蔵』, 明治書院, p.74. 「煎じやう常とはかはる問薬『四百四病は、世に名医ありて、験気をえたる事かならずなり。人は知恵・才覚にもとらず、貧病のくるしみ。是をなをせる療治のありや』と、家有徳なるかたに尋ねければ、『今迄それをしらず、養生ざかりを四十の陰まで、うかうか暮されし事よ。少し見立おそけれ共、いまだよい所あるは草足袋に雪駄を常住帯る心からは、分限にもなり給はん。長者丸といへる妙薬の方組、伝へ申べし。

△朝起五兩 △家職二十兩 △夜詰八兩 △始末十兩 △達者七兩

此五十兩を細にして、胸算用・秤目の違ひなきやうに、手合念を入、是を朝夕呑込からは、長者にならざるといふ事なし。然れ共、是に大事は毒断あり。』」

18) 神保五弥(1971)『日本古典文学全集37 仮名草子集 浮世草子集 好色敗毒散』, 小学館, p.352. 「届いた君様 内股膏薬聞かぬがまし 聞いては肝のつぶれる内儀の願て」이하, 『고쇼쿠 바이도쿠산』의 텍스트로 삼는다.

첨단의 호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구가 있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그 제약의 일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력제) 지황환 쉰 항아리, (정력제) 여희단 스무 상자, (여성용 방사 기구인) 공 삼백 오십 개, (남성용 방사 기구인) 네덜란드 실 칠천 가닥, (중약) (최음제인) 산초 약을 사백 봉지, (낙태 도구인) 우슬 뿌리 천 개, (낙태약인) 수은, 목화 열매, 고춧가루, 정행 백 근, 그 외의 여러 가지 방사를 위한 도구를 마련하고,¹⁹⁾

위의 품목들은 주인공 요노스케(世の介)가 여성들만 산다고 하는 전설의 섬 뇨고가시마(女護の嶋)로 가기 전에 배에 실은 물건들인데, 독자가 위의 제약이나 약제, 나아가 방사 기구가 바로 어떠한 것인지 이해했을 것을 전제로 일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위의 방사와 관련된 품목들은 보편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선행연구가 지적하듯 이 작품을 통해 해당 제약은 보다 널리 알려지고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증하듯 사이카쿠의 『고쇼쿠 이치다이온나』에도 위의 정력제인 지황환을 먹는 인물이 자연스럽게 묘사된다. 주인공 일대너는 어떤 노인 남성을 만나는데, 그의 연일 이어지는 방사 때문에 이십 일도 지나지 않아 힘겨워져 달아났다. 이 일화를 정력제 지황환을 먹는 젊은이에게 전하니 이를 갈며 대단히 부러워했다고 한다.²⁰⁾ 이 일화에서 지황환은 보통 노년층이 먹는 법인데 젊은이가 먹으며 노인의 정력을 부러워한다는 점은 반전의 웃음을 선사한다. 이처럼 사이카쿠는 의약과 방사가 밀접하다는 사실을 노인과 젊은이의 입장을 반전시키며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의약 상식에 관한 반전의 골계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의약문화에 관한 반전의 골계성이 이용될 정도로 우키요조시에는 정력제나 최음제 등 제약 섭취를 통한 방사가 종종 묘사되는데, 이와 같은 방법과 소재

19)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5) 『対訳西鶴全集一 好色一代男』, 明治書院, p.287. 「地黄丸五十壺、女喜丹二十箱、りん玉三百五十、阿蘭陀糸七千すぢ、(中略) 山椒葉を四百袋、えのこづちの根を千本、水銀、綿実、唐がしらの粉、午粉百斤、其外色々品々の責道具をととのえ、」 이하, 『호색일대남』의 텍스트로 삼는다.

20) 앞의 책, 『호색일대너』, p.299. 「この親仁、つよ蔵にして、夜もすがらすこしもまどろむ事もなく、「今時の若いやつらがうまれつき、おかしや」と、明暮こそぐられ、色々詫て、かまはず、いまだ二十日も立ぬに、明ても枕あがらず、鉢巻して色青く、やうやう御断を申て、「せめては死ぬうちに」とおそろしく、中宿へ人におはれて帰りぬ。地黄丸呑若き人に語れば、齒切をして口惜がりぬ。」

는 후속 작가 야쇼쿠 지분(夜食時分:??-??)의 『고쇼쿠 바이도쿠산(好色敗毒散)』(1703)에서도 사용된다. 이 작품의 제목은 “호색의 독을 없애는 약”이라는 뜻으로 그 자세한 집필 의의는 아래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정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높은 열에 심하게 들떠 기세 좋은 헛소리를 끊임없이 하며 유곽을 해매는 남자들이 있다. 이들에게 열을 식히는 약을 5권 5장으로 처방하고자 바이도쿠산이라고 이름 붙였다. 어떤 이가 묻기를, “이 글을 읽어도 유곽놀이에 빠지는 바가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답하여 말하기를, “나도 모른다.”²¹⁾

위에서 작가는 『고쇼쿠 바이도쿠산』 또한 작가가 제약을 통해 방사를 즐기는 현실을 반전시켜, 제약을 통해 방사를 금하게 하고자 한다는 발상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고쇼쿠 바이도쿠산』에는 다양한 호색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방사와 제약이 밀접하다는 사실을 역으로 이용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개되기도 한다. 호색 때문에 탕진한 센타로(仙太郎)의 꿈에 선녀 길상천(吉祥天)이 나타나 남녀의 연을 끊게 하는 제약의 처방 비법을 알려준다. 이에 센타로는 ‘선녀가 꿈에서 알려준 인연을 끊는 약(天女御夢想万物縁断薬)’이라고 큰 간판을 내걸고 홍보하니, 사람들이 사려고 몰려들어 큰돈을 벌었다는 것이다.²²⁾

한편 당대 일본 사람들은 바다 건너의 조선 사람들도 방사를 위해 제약을 섭취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 일례가 다음의 니시자와 잇푸(西沢一風:1665-1731) 작 『신쇼쿠 고칸쇼(新色五卷書)』(1698)의 4권 1장에서 묘사된다.

21) 『고쇼쿠 바이도쿠산』, p.350. 「恋風強く引き込み、浮気の熱すまじく、寛闊の讒言やむ事なく、揚屋の座敷をぬたうちありく輩に、追出薬用いんために、五貼五卷に調合して敗毒散と名付く。ある人間うて曰く、『この草紙を読みてものら本復の功さらになし、この事如何』。答へて云く、『われらも知らず』。」

22) 위의 책, pp.372-386. 「夢想薬(夢に神仏から配剤の方を授かったと称する薬)(中略)『いかに千太郎、われをたれかと思ふ。かたじけなくも天部第一の福神、吉祥天といふ者なり。(中略)さればなんちに奇特の妙薬を相伝すべし。(中略)この妙薬をふりかけて、様子をうかがへば、この床のうちにはかに騒がしくなりて、木枕なげうちつかみ合ひ、女はさばき髪、男は鬢切かなぐられて、(中略)四条寺町通りに、天女御夢想万物縁断薬と、大看板いだしければ、「これは前代未聞の薬なり。まづ一通りは買ってみや」と、人ごとに懐中して、のきたい女郎、去りたい女房、宿替へさせたい相借屋、季中に暇出したい奉公人などにふりかけみるに、そのきく事即座なり。京中この薬沙汰にて毎日二貫目余の現銀売り、門前に市をなしぬ。』」

“이것을 마시고 또.”라고 약을 준다. 위에 적혀있는 것을 보니, (규방의 비약인) “인마단”이라고 적혀있다. 시험 삼아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여 (약통인) 조계 껍질에서 꺼내 하나를 먹자마자 정욕이 넘쳐나니, (중략) 특히 방사를 나눈 후에 마음을 쓰는 바가 꽤 정이 두텁다. 이에 귀향할 것도 잊은 채 밤낮으로 정부의 일만 생각하게 된 것은 인마단의 위덕 덕분이다. (중략) “과연 이 인마단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비법이니, 정이 들어 그 기쁨에 제약 비법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함부로 남에게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다.²³⁾

쓰시마(對馬)의 젊은 선원 주에몬(十右衛門)은 부산에 파견 나갔다가 옷감 짜는 조선 여인을 만난다. 두 남녀는 깊은 정을 나누게 되는데, 여성은 인마단(人馬丹)이라는 정력제를 주에몬에게 건넨다. 이를 먹은 주에몬은 열정적으로 방사를 하게 되어 두 남녀의 정은 더욱 깊어만 간다. 여성은 묘약 인마단의 제조법은 조선에만 내려오는 비법이니 함부로 남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한다. 일본과 같이 조선에서도 묘약의 처방전은 비법ियो, 정력제를 통한 방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욕만큼이나 보편적인 인간의 욕망이 장수라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인간의 정욕과 장수에 대한 욕망이 제약을 통해 동시에 묘사되는 사이카쿠 작 『고쇼쿠 세이스이키(好色盛衰記)』(1688)의 일화를 살펴보자.

나흘, 닷새가 지나자 노인은 유녀에 대한 관심이 늘어 동침하고자 한다. 곤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몸을 맡기자 노인의 발은 제대로 퍼지지도 않고, (중략) “이 근처에 불로초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한 알이라도 천 냥을 주고 사고 싶구나.”라고, (중략) 귀한 다유님께 약을 꿇이게 하고, 약 한 잔에 은화 열여섯 냥이나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양생을 하니, 더 이상의 기쁨이 없다.²⁴⁾

23) 野間光辰校注(1966)『日本古典文学大系91 新色五卷書』, 岩波書店, p.465. 「『是飲んでまた』と薬やる、上書を見るに。「人馬丹(じんばたん)」と記せり。毒味してくる事なれば苦しかるまじと、蛤貝に一つ飲み込まぬ内、性気いよいよ盛んに、(中略)殊に枕交してよりの思ひ振り、中々心深く立戻る国の事を打忘れ、昼夜貞婦が事のみ思ふは人馬丹の威徳にてぞありけり。(中略)「扱此人馬丹こそ、我朝一子相伝なれ共、情の嬉しきに思ひ替え参らすぞかし。むさと人に伝給ふな」と允しぬ。」

24)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4)『対訳西鶴全集四 好色盛衰記』, 明治書院, pp.232-233. 「『四、五日も過ぎてから、老人きをもちて、床入をのぞみける。迷惑ながら、沙汰なしに身をまかせけ

위에서 평생 검약하고 돈벌이에만 열중했던 한 노인은 죽기 직전에 생애 처음으로 유곽놀이를 경험한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에 노인은 거금을 들여서라도 장수 할 수 있는 약 한 알을 얻어 유녀와의 방사를 즐겨보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인은 정육과 장수를 위해 한 잔에 은화(銀貨) 열여섯 냥이 나 되는 거금 내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필요한 제약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장수를 위해 당대 사람들 또한 거금 지불을 마다하지 않았던 현실이 우키요조시에 묘사되고 있다. 이렇듯 의약은 필연적으로 부(富)의 창출과 맞닿아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일화가 종종 확인되니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4. 축재(蓄財)와 의약

사이카쿠 작 『혼초 오인히지(本朝桜陰比事)』(1689)의 4권 6장에서는 다양한 병환을 치유하는 신비한 힘을 지닌 승려가 등장한다. 그는 치료로써 거금을 벌어들이는데, 결국 모든 치료행위는 돈을 벌기 위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탄로 나서 추방당한다. 그런데 이 승려는 추방당한 후에도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의사로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묘사되고 있다.²⁵⁾ 의사라는 직업은 당대에 특별한 면허 없이 돈을 벌 수 있었으므로, 의술 없이 의술을 생업으로 삼는 소위 돌팔이 의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일례를 다음 일화에서 확인해보자.

여기에 미나오토 잔케라고 하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머릿기름으로 잘 붙인 의사가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황록색의 혈렁한 남성 겉옷의 앞섶을 (끈이 아닌) 반짝이는 금으로 만든 장식품으로 가슴 언저리에서 짝 조이고, 그 모

るに、足ののびかがみも成がたく、(中略)もし此ちかくに不老の薬もがな。一粒を千貫目までに買たし」と、(中略)大事の太夫殿に薬せんじさせて、割一盃十六匁づつに当るをいとはず、養生しどころ、此うへの楽しみあらじ。」

25)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5)『対訳西鶴全集十一 本朝桜陰比事』, 明治書院, p.135. 「むかし、都の町より、万人信心して、松の尾の奥山へ参詣する事あり。旅僧、爰に庵をむすび、諸病を十七日の内に、へいゆういたせけるとの取沙汰。(中略)「毎日此所に散銭とまゆるへぞ」と、両替屋中間に心を付る程なり。(中略)此坊主売僧にて、最前の病人も中間の拵へものにて、散銭取込、よい程に立のく用意する時、(中略)「汝、其以前は薬師の売僧になれる成べし。子細は、肉桂を立木の皮の中へ籠らせ置ば、何によらず其木の枯るといふ事をたんれんして、人の気を取事、」(中略)彼法師、御目がねにたがはず、身を長羽織になして、伊勢国山田にて、朝脈にまはりけると也。」

습은 마치 중국과 일본의 중간 즈에 있는 것과 같았다. 사카이 언저리에 나가사키로부터 왔다고 하며 (원래 조난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주거형태이지만, 마치 의사인양 보이려고) 현관이 있는 집을 빌려서 성씨를 두꺼운 붓으로 쓴 명패를 기둥에 붙이고,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는 영약을 조제하여 목숨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니, (사람들은) 좋고 나쁨을 따지지도 않고 오사카 일대에 소문이 난다. 한 첩에 십 년씩 연명할 수 있고 열 첩을 먹으면 백살까지 살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서로 붙여 매매하니, 사람들이 이를 믿는다.²⁶⁾

위는 사이카쿠를 뒤이은 우키요조시 작가 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1666-1735, 이하, 기세키) 작 『우키요 오야지 가타기(浮世親仁形氣)』(1720)의 일화인데, 등장하는 노인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연명시켜 준다는 영약 한 첩 가격이 금 열 냥인데도 죽는 것보다는 장수하여 돈 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이 영약을 구매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일확천금을 노린 사기꾼에게 걸려든 것이었다. 사기꾼 의사는 수전노로 유명한 노인들도 장수라고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지녔을 것을 확신하고 노인들의 재화를 갈취한 것이다. 이처럼 의약이 축재와 밀접함은 야쇼쿠 지분 작 『고쇼쿠 만킨탄(好色万金丹)』(1694) 1권 1장에도 묘사되니 이를 살펴보자.

그러나 백 냥이나 되는 지참금의 이득으로 일 년 내내 유곽 놀이를 할 수 있으니, 만에 하나 아내 될 사람의 한쪽 눈 크기가 차이가 있더라도, 절름발이라도 (결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주판을 툭겼는데, 이 처녀의 미모는 이바라키야의 (유녀) 요시노를 꼭 닮은 모습이니, 이 남자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중략) 다음 봄부터 (방사 때문에) 진허의 병에 걸려 이 지역의 유명한 의사들이 모두 진찰을 했지만, 효험이 없어서 교토로 가서 (신분이 높은 분들을 진찰하는) 고텐야쿠에게 처방을 구하여 겨우 목숨만은 구했다. 3년 만에 원래 몸상태로 돌아왔다. 그 약값은 등 모든 비용이 24만 5백 냥이었다.²⁷⁾

26) 神保五弥校注(1971)『仮名草子集·浮世草子集 浮世親仁形氣』, 小学館, p.525. 「ここに水音残溪といふ、糟毛頭の撫付医者、常に変りし萌黄の十徳の前を合せて、きらめく金物にて胸元を締め付け、さながら姿は唐と日本の堺筋に、長崎より来りしとて、玄関構えの家を借りて、名苗字を筆太に張札門柱にあらはし、寿命長遠の靈薬を調合して、命を惜しむ人々に与へけるとて、よしあしいはずに難波中にこの評判。一服にて十年づつの延命、十服のめば百歳の寿命を保つ由、証文書いての売買、これ確かなる事ぞかし。」

지참금이 많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장가든 주인공 남성은 부인과 동침할 때마다 은화 한 냥을 내기로 했는데, 동침이 잦아 보니 그 금액이 상당했다. 이윽고 과도한 방사로 남편은 병을 얻고 여러 의사에게 진찰을 받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교토까지 가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 고텐야쿠에게 진찰을 받고서야 회복하는데, 그 약값만 해도 24관 5백 냥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었다. 이 금액은 물론 우키요조시에서 과장되게 설정된 금액이기도 하다. 현재 물가로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이 약값은 한화 약 5억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추정되니 현실적 치료비용이 가령 십 분의 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의 일화 또한 역설적으로 당대 의약이 축재와 밀접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²⁷⁾

한편 기세키 작 『후류 쿄쿠자미센(風流曲三味線)』(1706)에서도 의약은 축재와 밀접하게 묘사된다. 오미 부뉴(大海武入)라는 의사는 부잣집 딸 오란(おらん)의 상사병을 고치고자 그녀가 사랑하는 미남 소년의 얼굴을 얹게 만드는 주술을 외운다. 오란의 상사병이 나으면 오란의 집안에서 거금을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죄를 지은 후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거금을 벌기위해 돌팔이 의사가 되었음을 후에 고백한다.²⁸⁾ 이렇듯 생계를 위해 무조건 의사 흉내를 내는 사람들은 사이카쿠가 살았던 17세기 후반부터 많았다는 사실은 사이카쿠의 『신가쇼키(新可笑記)』(1688) 2권 4장에서도 드러난다.

27) 野間光辰校注(1966)『日本古典文学大系91 好色万金丹』, 岩波書店, pp.60-61. 「さりながら百貫目の敷銀の利にては、年中の色遊び自由なれば、たとへ女房はかんだにてもちんばにても苦しからずと胸算用せしに、此娘の美容、茨木屋の吉野に依稀写しなるは此男の仕合、(中略)明けの春より脾胃兩虚の病にかかり、此地の大医手を尽しけれど験なくて、京に上り御典薬の御薬頼りを求めて貰ひつつ、からうじて命を助かり、三年ぶりに大形元の物になりぬ。その間薬代万事の入用、二十四貫五百目也。」

28) 暉峻康隆·東明雅校注(2006)『西鶴の時代の通貨』『日本古典文学全集66 井原西鶴集1』小学館, p.588. 「銀一匁が二千円弱に相当すると見てよいことになる。(中略) 金一両=銀六十匁=十二万円」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계산해서 위의 은화 24관 5백 냥은“(24×1000匁+500匁)×2,000円”이므로, 현재 일본 엔화로 49,000,000엔, 원화로 약 5억 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9) 篠原進校注(1981)『叢書江戸文庫 八文字屋集 風流曲三味線』国書刊行会, pp.71-73. 「某は大海武入と申薬師なるが、(中略)幸我等が家伝に十年も二十年過ぎても痘瘡の裏を打つ呪あり。然ば此まじないにて小源次殿をぶ器量にいたしなば、おのづから娘子も見ざめありて、(中略)某もむかしは武士のまねもいたし、人に後指さされし事もなかりしが、牢人の身と成、おのづから心いやしく渡世くるしきまに、過分のほうびに目がくれ、よしなき悪事を工、世間に稀なる美少年の面を損じ、人になげきかけたる段、今以後悔せり。」

의학을 일 년도 채 배우지 않고 머리를 밀고 চে머리를 흔들며 긴 걸옷을 입고 작은 칼을 찬다. 약 상자를 정성스레 만들어 자신을 아무도 모르는 다른 지역의 대도시에서 살며 성씨를 과장되게 (씨서) 관문에 붙이고 부잣집의 현관문으로 꾸며서 자기 멋대로 치료하는 등,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것으로 이는 생사의 갈림길이고 죽기 아니면 살기인 큰일인 것을, 의사가 사람 죽인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한 것이다.³⁰⁾

의술은 배우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생사를 가늠하는 것인데, 요즘 의사들은 의사 일을 시작한지 일 년도 안 되어 머리를 밀고 외양만 그럴듯하게 하여 대도시에서 당당하게 의술을 행하니 의사가 사람 죽인다는 속담이 생길 법도 하다는 것이다. 『신가쇼키』 4권 3장에서 위와 같이 의사 흉내를 내고 거듭 생계를 이어가는 이가 등장하니,³¹⁾ 의약은 당대에 축재를 보장한다는 의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했다고 보인다.

이상과 같이 의술은 축재를 약속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행세를 하다가 발각되는 인물이 우키요조시에는 종종 등장한다. 이는 아직 의약문화가 현대와 같이 공적인 면허제가 아닌 사적인 상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의약문화가 축재의 방법임을 인식한 에도 초중기 조닌들의 경제적 풍요에 대한 욕망을 반영하기도 한다.

5. 나가며

기존의 연구는 에도 후기 대중문학을 견인한 기사쿠 작가들이 그들의 상업적 수완을 발휘하여 당대 대중문학 속에 의약 광고를 삽입하고, 혹은 현재의 선진물에 해당하는 의약 광고인 히키후다를 제작함으로써 의약문화 유포에 선

30)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4)『対訳西鶴全集九 新可笑記』, 明治書院, p.64. 「医学も一年たらずして、俄剃の天窓をふり、長羽織に小脇指、薬箱丁寧に拵へ、我を見知らぬ他国の大場に住居して、名字仰山なる張札門柱にあらはし、化粧作りの玄関構、押出しての治療するなど、人の命は大切な物なるに、此生死のさかひ、ふたつひとつの大事、薬師人を殺すとは是なるべし。」

31) 위의 책, p.130. 「又ござかしき人有て、該気ぐすりなどは手前に合せ、後には他の病気迄も密かに療治する程になりけるが、是も御暇出されてのち、与州松山のかたりに立こへ、医者まねして年月を送りける。」

도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해왔다. 이를 인정하면서도 본 연구는 에도 초중기 대중문학에서 의약문화를 다루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의 결과, 사이카쿠가 활약한 17세기 후반에 이미 조닌의 일상에 침투하고 인식되었던 의약문화가 사이카쿠의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인식되고 공유되기 시작했고, 이를 좇아 사이카쿠 이래의 우키요조시는 종종 의약문화를 크고 작은 소재로 삼았음을 밝혔다. 나아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첫째, 에도 후기 대중문학에 선행하는 우키요조시에도 제약명, 의약 도구명, 관련 가게명이 종종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닌들의 일상이나 영위를 빗댄 정도로 의약문화가 조닌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의약문화란 소재는 우키요조시에서 방사, 장수, 축재와 관련된 상황에서 자주 이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의 기본적인이고도 간절한 욕망인 방사, 장수, 축재이기에 인간의 일상과 욕망을 주된 소재로 삼는 우키요조시에 의약문화는 자주 소환될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흐름이 에도 후기 대중문학에 의약문화가 자주 소환되는 데에 일조했음에는 틀림없어 보였다.

의약은 인류 역사상 오래토록 중요하고 신비스럽게 다루어져 왔다. 인류의 번영과 직결되는 인명과 관련되고 방사, 장수, 축재 등 인간의 욕망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윽고 에도 초중기의 대중문학 우키요조시를 통해 구체적인 의약 지식 및 정보 등 의약문화가 공유, 유포됨으로써 의약문화가 서민층의 욕망과 이웃하고 공존할 수 있는 대중적인 것으로 거듭났다고 하겠다. 환언하자면 우키요조시에 묘사된 의약문화는 의약문화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님을 서민층에게 의도치 않게 인지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하겠다. 나아가 에도 후기 대중문학 속의 의약문화가 독자층에게 부자연스러움 없이 읽힐 수 있었던 데에는 우키요조시의 의약문화 이용이라는 전사가 있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강용자 역(2009) 『양생훈』, 지식을 만드는 지식, p.19, p.133

최태화(2013) 「일본 근세 광고문학과 순스이닌조본에 보이는 광고의 역할」, 『일본 언어문화』 제25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607

- 青木歳幸(2012)『江戸時代の医学』, 吉川弘文館, p.42
-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4)『対訳西鶴全集一 好色一代男』, 明治書院, p.287
-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4)『対訳西鶴全集二 諸艶大鑑』, 明治書院, p.38
-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4)『対訳西鶴全集三 好色一代女』, 明治書院, p.299, p.307
-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4)『対訳西鶴全集四 好色盛衰記 嵐無常物語』, 明治書院, pp.232-233, p.260
-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4)『対訳西鶴全集五 西鶴諸国ばなし』, 明治書院, p.13
-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4)『対訳西鶴全集六 男色大鑑』, 明治書院, p.24
-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4)『対訳西鶴全集九 新可笑記』, 明治書院, p.64
-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5)『対訳西鶴全集十 本朝二十不孝』, 明治書院, pp.6-7
-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5)『対訳西鶴全集十一 本朝桜陰比事』, 明治書院, p.135
-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5)『対訳西鶴全集十二 日本永代蔵』, 明治書院, p.74
- 近世風俗研究会(1956)『絵本江戸売薬志』 近世風俗研究会, pp.7-8
- 篠原進校注(1981)『叢書江戸文庫 八文字屋集 風流曲三味線』, 国書刊行会, pp.71-73
- 神保五弥(1971)『日本古典文学全集37 仮名草子集 浮世草子集 好色敗毒散 浮世親仁仁氣』, 小学館, p.350, p.352, pp.372-386, p.525
- 宗田一(2001)『日本の名薬』, 八坂書房, pp.69-70
- 暉峻康隆(1981)『西鶴新論』, 中央公論社, pp.377-382
- 暉峻康隆・東明雅校注(2006)『西鶴の時代の通貨』『日本古典文学全集66 井原西鶴集1』, 小学館, p.588
- 野間光辰校注(1966)『日本古典文学大系91 好色万金丹 新色五卷書』, 岩波書店, pp.60-61, p.465
- 長友千代治(2002)『江戸時代の図書流通』, 思文閣出版, p.295
- 広末保(1969)『元禄文学研究』, 東京大学出版社, pp.2-9
- 山崎光夫(2015)『薬で読み解く江戸の事件史』, 東洋経済新報社, pp.158-161
- 吉岡信(2011)『江戸の生薬屋』, 青蛙房, pp.108-124, pp.137-142, pp.158-159

논문 투고 일자 : 2018. 06. 18.
논문 심사 일자 : 2018. 07.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8. 03.

 < 要 旨 >

浮世草子における医薬文化に関する小考

高永爛

本研究は、井原西鶴や後続の作家の浮世草子にも江戸後期の戯作のような医薬文化が描かれている点に着眼したものである。研究の結果、十七世紀後半には、すでに町人の日常に浸透し意識されていた医薬文化が、西鶴の作品を通じて読者に認識されており、共有されつつあった。この流れの上で、西鶴以降の浮世草子作家もまた、その作品の中で医薬文化を頻繁に取り上げていた。具体的には、次のような点が指摘できる。

まず、浮世草子には製薬名、医薬道具名、医薬関連の店名が頻繁に描かれていた。さらに、町人の日常や営為が医薬文化に例えられるほど、医薬文化は町人の日常に深く浸透していたことが理解できた。第二に、医薬文化という素材は浮世草子において房事、長寿、蓄財と関連した場面でよく描かれていた。房事、長寿、蓄財は人間の自然で根本的な欲望であり、このような人間の欲望と現実の葛藤を描く浮世草子だからこそ必然的に医薬文化は浮世草子の中で用いられていたと言える。

以上のように、浮世草子には現実社会や町人の欲望と関連した医薬文化が頻繁に描写された事実のおかげで、医薬文化は特殊な階級の所有物にとどまらず、町人層にも親しまれるようになり、この傾向を踏まえて江戸後期の戯作でも医薬文化が頻繁に用いられたと指摘できる。

A brief overview of medicine culture described in Ukiyozoushi

Koh, Young-Ran

This study focused on the medicine culture described in Ukiyozoushi, the public literature of the Edo era. The works of Ihara Saikaku and his followers, in particular, describe the medicine culture of the time, indicating that the medicine culture of the late 17th century through the 18th century was understood and shared as public culture in Japan. Thus, the authors describe such medicine culture in the form of chōnin (町人) anecdotes.

First, many names of medicines, medical instruments, and pharmacies are described in Ukiyozoushi works. Furthermore, some literary rhetoric of medicine on chōnin daily life and management is included, also. We can therefore understand how medicine culture in those days spread in chōnin daily life.

Second, medicine culture, as described in the Ukiyozoushi was related to love affairs, long life, and money, indicating that these aspects were at the core of chōnin interests at the time and tended to affect public literature of the late Edo era.